

멕시코의 고전기 마야 커뮤니티 Tonina에 관한 고찰

김 우 중
(대구가톨릭대학교)

I. 들어가면서

또니나(Toniná)¹⁾는 고전기 마야 시기에 빨렝게(Palenque)의 부속 도시로 발흥하였다. 동 시기 마야의 중심은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Petén)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멕시코만에 연결한 타바스코(Tabasco), 동쪽으로는 벨리즈(Belize)에 이르는 중앙 지역이었다. 기타 지역은 주변 지역이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고전기 이후 마야 시기(Post-classic Mayan Period)의 중심으로 부상한 유카판 반도의 북부 지방과 과테말라 고지대, 그리고 고전기 이래, 치아 빠스 지방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남부 지방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²⁾

1) 또니나(Toniná)라는 명칭은 마야계 방언인 첼탈(Tzeltal)어로 ‘돌의 집(House of stone)’이라는 뜻이다. 이는 또니나의 전성기였던, 고전기 후기 마야의 마지막 시기에 또니나가 빨렝게를 물리치고 우수마신따강 서북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석조 부조로 장식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고전기 전기의 또니나의 원래 명칭은 ‘뽀’(Po 혹은 Popo)였다고 한다.

2) 언어연대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야어족의 조상은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작은 부족으로서, 이들이 남진하여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 서부 과테말라 고지에 정착한

마야 고전기 말기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또니나가 강력한 국가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첫째, 마야의 변경 지대에 위치한 또니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전기 말기의 마지막 시기에 지배 세력으로 대두되었을까? 마야 문화의 시대를 전고전기(Pre-classic period), 고전기(Classic period), 후고전기(Post-classic period)로 나누고, 고전기를 전성기가 시작된 A.D. 300년부터 A.D 900년까지로 보고, 이 600년간의 고전기를 전기 고전기(A.D.300~A.D.600년경)와 후기 고전기(A.D.600~A.D.900년경)로 구분하는 기존 학설을 따른다면, 고전기 전반부 문화의 중심지는 빼뎀 지방의 북동 지역이다. 고전기 이전 시기(Pre-classic period)를 잇는 엘 미라도르(El Mirador), 나끄베(Nakbe)에 이어 띠틈(Tikal), 갈락물(Calakmul), 우아삭툼(Uaxactun), 나꿈(Nakum), 나랑호(Naranjo) 등의 거대한 신전 도시(神殿都市)가 잇달아 세워진 시기가 바로 이 고전기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며, 코벨 아치(corbel arch)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조물, 역법(曆法), 신성 문자, 특징적인 토기 및 암석 조각물 및 스투코(stucco)로 만들어진 프리즈(frieze)와 채색 벽화 등은 모두 이 시대에 나타났다.

이러한 마야 문화의 변형은 동(東) 벨리즈 지역의 벤케 비에호(Benque Viejo)와 푸실하(Pusilha), 그리고 온두라스의 코뎀(Copán)과 인접한 과테말라 지역의 끼리구아(Quriguá)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빼뎀의 서쪽인 서(西)우수마신타(Usumacinta) 강 유역의 빼에드라스 네그라스(Piedras Negras), 야스칠란(Yaxchilan), 알따르 데 사끄리피시오스(Altar de

것이라 한다. 그 후 1,000년 사이에 이 부족이 두 어족으로 갈라져 하나는 북서로 진출하여 멕시코만 연안의 아스떼까어족(語族)을 형성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 나아가 빼뎀 저지대에서 유까뎀 지방에 이르러 유까떼까어족이 되었다. 다시 기원전 1000년대 전반에 마야어족의 모체로부터 출어족 및 촌말어족이 갈라져 나와서 중앙 지방의 저지에 들어가 북부의 유까떼까어족과 접촉하였다. 이렇게 보면 분석 대상 지역인 또니나와 그 모도시(母都市) 빨렝게 그리고 인근의 빼에드라스 네그라스 지역은 아스떼까어족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우수마신타강을 경계로 빼뎀지역의 유까떼까어족과 공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Sacricios)³⁾, 빨레께, 또니나 등의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곳 우수마신따(Usumacinta)강 지역과 그 서북 지역인 빨레께가 위치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은 고전기 전기 이래 과테말라 고지에서 비롯된 비석(estela)⁴⁾과 여러 석조 기념물(stone monument)들이 가장 오래까지⁵⁾ 남아 있었던 곳인 동시에, 또 멕시코 지역의 영향을 받은 지표 유물인 ‘파인 페이스트(fine paste) 도기’⁶⁾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기도 하므로 그 연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양 지역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고전기 말기에 지배적 위치로 상승하였으므로 동 지역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단기간에 세력을 잡은 또니나가 어떻게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관료제 및 군제(軍制)를 가지지 못한 또니나가 이용한 것은 대형 건축물의 구축과 신화 체계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기 말기의 마지막 시기까지도 역동적으로 건축 및 기념물 제작이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과 그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따바스꼬 지방에서 가장 먼저 침입한 멕시코계 주민에게 정복된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금년까지 6년간 수 차례에 걸쳐 행한 유가판 및 빼펜 지역의 깔락물, 빨레께, 또니나, 야스칠란 등 마야 유적지에 대한 현지 조사 연구의

- 3) 우수마신따강과 빠시온강의 합류점에 있는 도시.
- 4) 빼펜의 띠깁, 깔락물, 동부 지역인 꼬뻘, 끼리구아에서 볼 수 있는 조각과 신성 문자를 새긴 석주(石柱) 등이 과테말라 고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석주들은 마야의 역년(曆年) 및 기록들이 남아 마야 관련 제1차 사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 5) 현재까지 남은 마야의 장기력 기록 중 가장 최근 연대의 것으로 알려진 것은 또니나의 기념물 101인데 여기에는 마야 장기력 10.4.0.0.0.(서기 환산 909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시기 이후에 새로 세운 기념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909년 이전에 고전기 마야는 종식된 것으로 본다.
- 6) 파인 페이스트 도기는 이른바 ‘평민형 도기’라 불리우는 것이다. 종래 마야의 고급형 도기는 국가간에 주요 교역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멕시코만을 경유하여 마야의 서북 변경 지대로 진출한 멕시코인들이 가져온 이 도기는 평민계층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도기의 발견은 멕시코인 진출의 지표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결과물이며, 지리적 환경으로 개인적 답사를 할 수 없었던 빼에드라스 네그라스, 엘 미라도르 등 본 논문의 주대상인 또니나와 비교 대상이 되는 마야 도시에 관한 것은 후기 참고 문헌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고찰한 것임을 밝힌다.

II. 또니나의 주변 정황

<그림-1>은 또니나가 자리잡고 있는 우수마신타강 서부 지역과 서북부 변경 지역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지역의 주도권 다툼은 고전기 전기와 후기로



<그림-1> 우수마신타강 서부 지역 및 서북 변경 지역과 빼엔 지역의 고전기 마야 도시 국가들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고전기 전기에는 이 지역의 주도권 쟁탈전이 서부 우수마신따강의 상류 지역인 야스칠란과 빼에드라스 네그라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고전기 후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빨레계와 또니나의 쟁패는 이들 도시가 주요 도시로 성장한 시기인 고전기 후기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빨레계가 또니나의 모도시(母都市)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이스 마르쿠스의 가설’을 입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중심부와 주변부가 이반되고 나면 중심부는 자기 투자를 거듭하여 비대해지고, 이에 질세라 주변부들도 자기 투자를 하게 된다. 제한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중심, 주변의 갈등이 지속되면 중심부는 쇠약해져 주변부화하고, 주변부는 중심부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엘 미라도르=>띠깔=>갈락물과 도스 빨라스'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마신따 지구의 야스칠란과 보남팍(Bonampak), 서북 변경의 빨레계와 또니나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고전기 초기에는 마야의 공놀이(Juego de Pelota)가 이러한 경쟁 관계에서 지배 복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인 것 같다. 실제로 인근 부족과의 경쟁에서 패한 종족의 왕은 승전국에 잡혀가서 공놀이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취해졌고, 해당 지역의 일반인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전기 후기 이후에는 자원의 결핍, 지배 계급의 확대 등 제반 요인이 결합되어 부족장이나 왕만 처형되는 방식이 아니라 패배한 종족 모두가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고전기 전기, 우수마신따 지역에서는 야스칠란(A.D. 359 - A.D. 808)과 빼에드라스 네그라스가 쟁패하였다. 빼에드라스 네그라스는 마야의 중심 지역인 빼텐 지역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⁷⁾ 고전기 후기인 8세기에 이르러서는 고전기 후기에 발흥한 야스칠란이 지배자의 위치로 부상하게 된다⁸⁾. 멕시코 치아빠스주와 과테말라와의 접경 사이에 위치한 야스칠

7) 건축 양식은 코벨 아치보다는 포스트 앤 린텔 방식(post and lintel. 상인방 양식)을 사용하였고, 증기탕을 중시하여 8개나 설치하였으며, 기념물 제작하는 풍속이 있었다.

8) 야스칠란 왕인 ‘새 재규어’가 빼에드라스 네그라스의 왕위 계승에 주요 역할을 하였고, 빼에드라스 네그라스의 왕은 야스칠란 후계자 지정 의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였다.

란은 빼에드라스 네그라스를 통해 엘 까요(El Cayo)와 그 부속령을 통제하였고, 남동 방향으로의 알따르 데 사끄리피시오스(Altar de Sacrificios)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 서북쪽으로의 유대도 강화되었고, 고전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빨레계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⁹⁾이 등장하고, 빨레계의 기록에 등장하는 등 인근 지역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야스칠란은 7세기 말과 8세기에 걸쳐 2대왕 ‘방패 재규어(Itzamnaaj B'alam I ("Shield Jaguar I"))’와 3대왕 ‘새 재규어¹⁰⁾(Bird Jaguar I, 378-389)’의 지배기에 절정에 달해 그 영역이 하류의 빼에드라스 네그라스에서 상류의 알따르 데 사끄리피시오스(Altar de Sacrificios)까지 미치게 되었다.

야스칠란의 서남쪽 25km 떨어진 속령 중의 하나였던 보남빡은 야스칠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이다.¹¹⁾ 특히 결혼 동맹¹²⁾을 통해 8세기 말에 야스칠란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었다. 또 보남빡의 벽화 중에는 또니나의 왕과 보남빡의 왕이 함께 정벌 후 승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니나와 그의 모도시였던 빨레계의 쟁패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8세기 전반에 걸치고 있었고, 여기서 또니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동 시기에 우수마신따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 보남빡과 서북 변경 지역의 주변부에 위치한 또니나 등 주변부 국가 간에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변부의 중심부화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고전기 후기의 마야의 서부 변경 지역은 현재 온두라스 지역인 남동부의 꼬빤처럼 독특한 문화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 지역의 북쪽에는 멕시코 연

9) 이충경사 지붕, 크레스테리아의 채택, 야스칠란의 건물 전면 장식(칠, 섬세한 스투코와 부조로 장식)에도 영향.

10) 야스칠란의 기념물인 상인방(lintel) 8의 조각에 따르면 A.D 755년 5월 7일. 전사인 ‘새 재규어’와 옥장식한 해골이 포로를 잡는 장면이 보여진다. 통상 마야의 스투코나 벽화에선 지배층들이 종속민들이나, 노예보다 큰 크기로 그려지며, 이 상인방에 쓰여진 상형 문자는 절반 이상이 해독되어 새 재규어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11) 보남빡은 낮은 언덕을 타고 만들어진 테라스 구조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 부조 및 벽화에서도 야스칠란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12) 지배자와 지방 수도의 귀족 여인(아마 야스칠란 왕의 누이)의 결혼이 이루어졌고, 이 여인은 8세기 말에 찬 무안과 함께 벽화에 등장하여 권세를 과시하고 있다.

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마야인과 이들은 혼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동 지역은 외지인과의 접촉이 잦았고 이것이 사회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¹³⁾

동 지역의 중심은 팰렝께(A.D. 3세기 초~820년)로서 여러 작은 도시를 거느리면서 상당한 지역을 지배했다. 팰렝께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후 3세기경부터라고는 하지만 7세기 초까지는 아직 소도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03년에 태어나 12세에 왕에 오른 ‘빠깔 II (Pakal II, 615(9.9.4.2.8.) - 683(9.12.11.5.18.))’왕과 그의 대를 이은 아들 ‘찬 발람(Chan Bahlam II, 684-702)’에 의하여 급속히 성장하여 692년경 절정을 이루었다. 현재 남겨진 팰렝께의 유적들은 모두가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팰렝께 전성기의 외교 관계를 보면 띠깔¹⁴⁾ 및 고뻘¹⁵⁾과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세력권은 남쪽으로는 또니나, 서북쪽 한계선은 또르뚜게로(Tortuguero)¹⁶⁾, 해안 부근의 꼬말칼꼬(Comalcalco)¹⁷⁾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8세기 들어 부속 도시였던 또니나와 주도권 다툼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771년 이후에는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820년경에는 완전히 몰락하고 도시는 비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8세기 초에 또니나에 패배한 후¹⁸⁾ 8세기 말까지 쟁패전을 지속하였는데, 보남빡 등과 제휴한 또니나에 결국은 패하게 되고 그에 따라 팰

13) 이것이 마야의 쇠퇴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고전기 후기에 마야가 쇠퇴한 원인은 아직 상세하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내란설, 토양의 황폐설 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최근에는 따바스꼬 지방에서 침입한 멕시코계 주민에 의해 정복되어 종식되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14) 팰렝께의 기록에는 띠깔이 언급되어 있고, 띠깔의 재규어 신전과 귀족 무덤에서는 팰렝께에 대해 언급한 골편(骨片)이 발견되었다.

15) 749년 등장한 고뻘의 ‘스모크 쉘(연기나는 조개)’는 팰렝께 공주와 혼인하여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 (브라이건 페이건, 2000, p.334.)

16) 또르뚜게로에서는 결혼 동맹을 시사(팰렝께 귀족 여성 중심 지역과 지방 도시 연계)하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17) 꼬말칼꼬의 건축물 부조(Frieze)에서 팰렝께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고, 또 멕시코 중부 및 유카판과 유대를 시사하는 요소들이 발견되는 등, 문화의 중첩이 있어 저지대 울루아와 함께 문화적 복합성을 띄고 있었다.

18) 8세기초, 파깔 II의 손자이며 찬발람의 아들인 칸술(K'inich K'an Joy Chitam II ("Kan Xul II") 702-711 d. 722?)이 또니나에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렝게 및 그 인근 도시도 쇠퇴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빨렝게는 세력을 상실한 최초의 남부 중심지로 기록되었다.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던 8세기 중엽부터는 공공 건축은 쇠퇴하였고, 따라서 비석 및 석주 등의 기념물은 남지 아니하였고, 도기 등에 기록의 편린이 남게 되었다.

빨렝게 종속 도시중 제일 규모가 컸던 뽀모나(Pomona)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빼에드라스 네그라스와 야스칠란의 변경 지대 가까이에 위치하여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독립적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지만 초기 고전기에 등장한 또니나는 8세기 동안 빨렝게와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 승리했고, 그에 따라 서기 800년 무렵부터는 서부, 남부 저지대에 비석의 건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승리에 힘입어 기념물을 건설했는데,¹⁹⁾ 서기 909년에 해당하는 마야 장기력 10.4.0.0.0.의 기록이 남긴 비석이 그 주요한 예이다. 하지만 또니나의 경우에는 빨렝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들을 모두 관할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흡사한 예는 동시기 띠깔을 이은 빼텐의 도스 빨라스(Dos Pilas)와 아구아떼까(Aguateca)의 쇠퇴에 대응하여 나타난 세이발(Ceibal)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니나가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야의 서북 변경 지역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멕시코만의 인구들이 흔해 하였던 변경 지대(예: 꼬말갈꼬)부터 시작해서 우수마신타강을 지나 중부 저지대로 확장되는 일반적인 물증으로 지적되는 것이 멕시코인 영향을 받은 도기인 “파인 페이스트(Fine paste) 도기”이다. 이는 계급적 차별성을 보이는 마야 도기와는 달랐으며, 멕시코인의 진출을 표시하는 지표 유물이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7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는데, 8세기에 이르러서는 서부 마야 거의 전역에서 남부 양식의 도기들이 사라지며 확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빨렝게의 공공 건축 소실과 동일한 시기였음이 특기할 만하다. 이어서 9세기 초 빼에드라스 네그라스가 ‘파인 페이스트 도기’ 생산자 계층에 점령되었고, 우수마신타강의 상류인 알파르 데 사끄리피시오스는 8세기 말까지는 기념물을 세울 수 있었으나 9세기 초에는 파인 페

19) 9세기 중에 또니나에서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주제를 강조한 포로 등의 조각품이 만들어졌다.

이스트 토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10세기에는 전성을 이루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빼벤 지역에도 확산되었다. 즉 외적의 침공이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걸쳐서 도스 벨라스를 강타했다. 아직 ‘파인 페이스트 도기’는 등장 이전이나 점차 외적의 압력은 가중되었던 듯하다. 9세기 초에 이르면 도스 벨라스와 뿐만아니 데 치미노(Punta de Chimino)에서는 도시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어 띠깔의 귀족이 이전하여 살던 아구아떼까는 좀 더 버티는가 싶었지만 곧 붕괴하여 ‘파인 페이스트’ 도기 생산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9세기 초에 아구아떼까가 멕시코 세력에게 붕괴하자 인근의 세이발이 정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이발은 마야 장기력 889년(10.3.0.0.0.)명의 비석²⁰⁾을 세웠으나(이는 외세 지배하에서 세운 것 같다.), 10세기 초에는 압력에 의해 인근 도시의 예를 따라 도시가 유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¹⁾

III. 또니나의 개요²²⁾

9세기에 이르러 빨랭계를 물리치고 마야의 서북 변경에서 우위를 차지한 또니나는 이전에 빨랭계가 지배하던 지역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10세기 초(909년)에 마지막 마야 장기력을 표기한 비석을 남긴 또니나가 멕시코계의

20) 세이발의 기념물(Monument) 3에 기록이 남아 있음.

21) 이처럼 빼벤 지방의 고전기 마야 문화가 쇠퇴한 후 유카탄 반도에서는 푸크 양식의 마야 문화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으나 10세기가 끝날 무렵 멕시코에서 톨테카계의 군사 집단이 침입하여 마야족을 정복하고, 치첸잇싸를 중심으로 유카탄 반도를 지배하였다. 이어 13세기에 들어서는 따바스코 지방에서 잇싸족이 침입하여 마야빤을 건설하고 꼬꿈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꼬꿈 왕조는 15세기 중반에 내란 때문에 무너지고 유카탄 반도는 십여 개의 작은 수장국(首長國)으로 분열된 채 16세기에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고지에도 11세기경 멕시코계 세력이 침입하여 끼체족의 우따뜰란(Utatlan), 깝치켈족의 이심체(Iximche) 등 멕시코 양식의 신전 도시가 건설되는 등 멕시코계의 침공은 마야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22) 또니나에 대한 더 상세한 관련된 기술은 Robert j. Sharer, Lod P. Traxler (2006) 471-476 참조.

침공에 굴복하자, 연접 지역인 우수마신따 지역과 그 동부 지역인 빼뻘 지역으로까지도 연이어 멕시코계 침공 세력에 굴복하였다. 이처럼 지극히 짧은 영광의 시기 만을 누릴 수 있었던 또니나는 본래 빨레계의 종속 도시였다. 또니나와 빨레계와의 유대 관계는 건축 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신전 등에 채택한 이중 경사 지붕, 지붕 장식인 크레스테리아의 유사성, 삼엽형 코벨 아치의 채택, 소석회가 도포된 벽위의 붉은 칠, 섬세한 스투코와 부조로 장식된 건물 전면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형에 맞게 테라스 타입(플랫폼 방식)으로 설계한 71m에 달하는 피라미드의 높이와 신전의 모습은 빨레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베치도의 2/4분면을 보면 희생 제단②과 그 옆에 제단과 피라미트가 보이고 그 앞으로 구기장①이 보인다. 규모가 매우 작고 오래된 이 지역은 이 사이트의 주된 진입로인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또니나 초기의 유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8세기 초, 빨레계와의 주도권 다툼에서 우세를 점한 또니나는 도시 규모의 확장을 시도하고 이는 건축 면에서 잘 나타난다. 기존의 종교 영역의 배후지를 주 광장으로 조성한 후 그 오른쪽인 산의 사면(斜面)을 이용한 플랫폼 방식의大神전군(大神殿群)을 건축한 것이다. 주된 연회장인 구기장③은 사면의 신전군 전면으로 이동되었고 또니나의 왕은 ⑦에 위치한 벽화 앞에 설치된 왕좌에서 이를 지켜보게 되는 형국을 취하게 되었다. 산 사면에 조성된 플랫폼의 각단에 지어진 신전군(⑥, ⑧, ⑨, ⑩)은 승리자의 영광을 담은 화려한 스투코 조각물과 왕의 형상을 담은 비석으로 채워졌다. 이렇듯 산의 사면을 이용한 건축은 우수마신따와 서북 변경 지역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야스칠란, 보남빡, 그리고 이 또니나의 경우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빨레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 뼈깔 II세와 그 아들 찬발름이 건설한 비명(碑銘)의 신전이나 그 뒤에 위치한 십자가의 신전, 나뭇잎 십자가의 신전 등이 모두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지어졌으며, 건설 시기나 영향력의 면으로 미루어 볼 때 빨레계의 경우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었다는 데서 나온 결론이라 하겠다.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을 향하여 지어진 기존 건물군의 방향을 틀어 산의 사면을 이용한 신전군을 건설한 이유는 단기간에 주변부에 위치한 종속



<그림-2> 석비에 새겨진 왕(ruler)들의 모습

도시의 위치에서 중심부로 급격한 상승을 이룬데 대한 과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거대한 산의 사면 전체를 마치 하나로 만든 듯한 웅대한 규모의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

여기저기에 위치한 신전들, 왕의 모습을 나타낸 석비들과 포로로 잡힌 타 지역 군주들의 모습을 한 조각들, 상대국의 왕을 포획한 것을 나타내는 신화를 반영한 벽화들은 또니나의 위세를 떨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였다. 빼에드라스 네그라스와의 장기간 주도권 쟁탈전을 끝내고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야스칠란의 주신전 이동과 경사지를 이용한 신전 건축, 야스칠란과의 주도권 쟁탈에서 우세를 점한 보남빡의 경사지를 이용한 사면 건축 등도 지배자의 위엄을 나타낼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1>은 또니나의 비석에 쓰여진 왕의 명칭과 그들의 치적을 정리한 표이다. 표에 따르면 8세기의 빨랑게와의 마야 서북 변경 지역의 주도권

<그림-3> 포로가 된 타 지역 군주의 소상 및 부조

쟁탈전과 그 이후의 주변 지역들에 대한 전쟁의 승패, 포로의 획득 여부가 왕들의 주요 업적임을 볼 수 있다. 마야 고전기의 마지막 시기에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또니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공납물의 획득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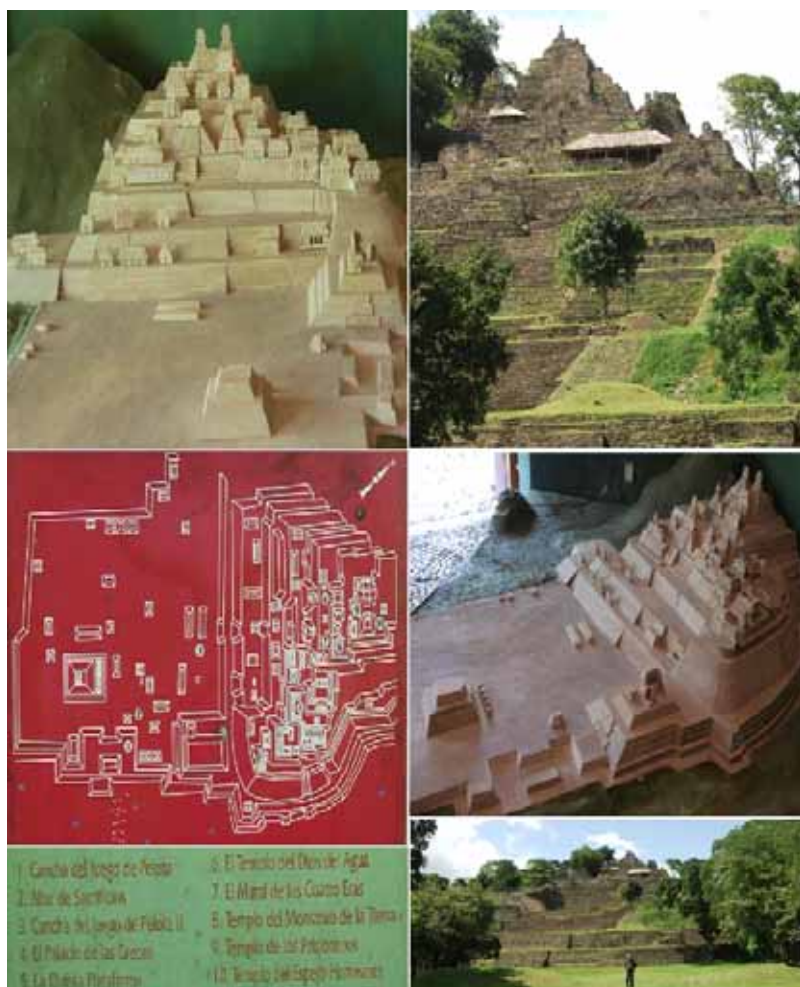
왕명 (혹은 별명)	지배기간	통치 내역
지배자 1(Ruler 1)	?	-
B'alam Ya Acal	A.D. 6c	-
Chac B'olon Chaak	?	-
K'inich Hix Chapat	595 - 665	비석으로 즉위년 확인.
지배자 2(Ruler 2)	668 - 687	빨랑계에 패배, 포로로 압송됨. 희생됨.
K'inich B'aaknal Chaak	688 - 715	빨랑계에 군사적 승리,
지배자 4(Ruler 4)	708 - 723	Palenque에 승리, 칸술王을 포로로 함
K'inich Ich'aak Chapat	723 - 739+	빠에드라스 네그라스와 전쟁.
K'inich Tuun Chapat	to 762	-
지배자 7(Ruler 7)	?	-
지배자 8(Ruler 8)	787 - 806+	마지막 전사 왕. 789 뽀모이 패전. 포로 획득
Uh Chapat (Ruler 9)	837	포로 획득 다수.
지배자 10(Ruler 10)	901	마지막 왕.

<표-1> 또니나 비석에 쓰여진 왕명 조건표
(Martin & Grube, pp.178-186 및 Sharer & Traxle, pp.473-476)

IV. 또니나와 뽀뽀부

단기간에 급성장하여 서북 변경 지대의 주도권을 확립한 또니나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의 한 가지는 신화의 이용이었던 것 같다. 아스페가가 신화 체제를 이용한 지배 체제를 선택한 것같이, 또니나의 입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복속된 제 부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

하는 방법으로서의 신화는 유용한 것이었다. 또니나는 당시의 마야 부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공놀이의 전승을 강화하여 채택하였다. 공놀이는 과거 또니나의 성립 시기에도 운영되었다. 하지만 8세기 중반 이래 서북 변경 지방



<그림-4> 또니나의 박물관에 있는 모형(전면, 측면) 및 배치도. 배치도를 보면 또니나가 2기에 걸쳐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구기장과 제단, 피라미드 및 주신전의 배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다.

의 주도권을 잡아나갔던 또니나가 경사면을 이용한 건축을 통해 위용을 과시하는 동시에, 벽화 및 스투코를 이용한 부조 및 조각에 신화적 요소를 반영시킴으로서 얻어지는 위세의 과시 효과 역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니나가 위치한 우수마신타 유적이 뽀뽀부가 발견된 치치까스페 낭고가 속해있는 과테말라 고지대인 이심체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뽀뽀부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벽화를 9세기 후반에 남기고 있음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마야 지역 전역에 걸쳐 통일된 창조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니나의 신화를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림-4>에 표시된 평면도의 ⑦의 장소에 위치한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²³⁾, 벽화의 앞에는 대형의 옥좌가 위치하고 있고, 지배자는 그 곳에 앉아 새로이 건설된 제2의 구기장을 지켜보면서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쪽의 벽화를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5>). 유명한 보남빡의 벽화는 왕의 정복 기사나 분배 및 위세 과시에 그치고 있는데, 또니나의 스투코 부조는 마야의 신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부조의 그림이 또니나에 패배한 빨랭계의 왕이 구기장에서 죽고 머리를 잘린 장면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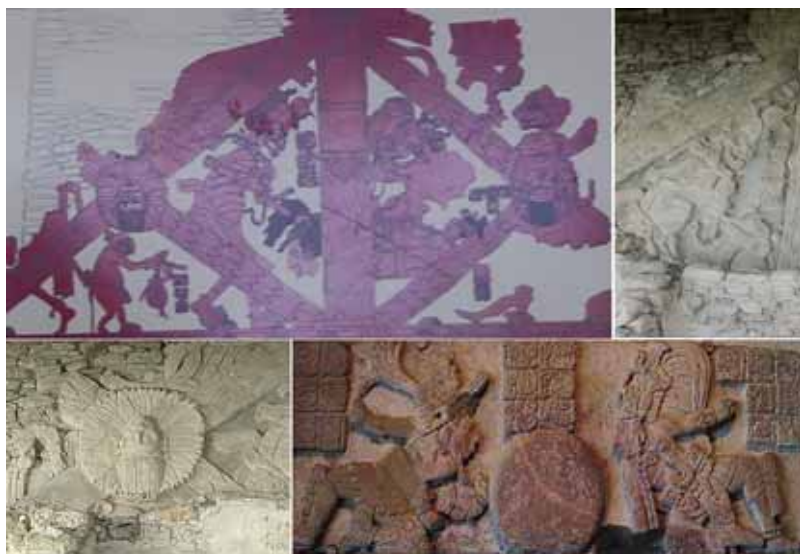


<그림 5> 또니나의 스투코 부조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스투코의 부조는 ‘뽀뽀부’의 내용을 매우 충실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니나에서 사용된 마야 지역의 신화는 나중에 해와 달이 되는 ‘우니뿌(Hunahpu)’와 ‘스발

23) 본 벽화에 대한 다른 설명의 예는 David Freidel(2001) pp.318-323 참조.

란께(Xbalanque)’의 전승이 담긴 뽀뽀부리는 것이 된다. 과테말라시에서 북서쪽으로 145Km 떨어진 끼체(Quiché)주의 고산 지대에 위치한 치치까스떼낭고의 한 성당에서 스페인어로 기록된 마야의 전승이 담긴 뽀뽀부가 17세기에 발견되었다. 끼체 마야(Kiche’ Maya) 부족이 세운 추일라(Chuilá) 마을의 후신인 치치까스떼낭고에서 발견된 뽀뽀부는 ‘공동체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진 끼체나 깝치궤의 신화 전승이 담긴 책으로 인식되어 왔었지만, 마야의 서북 변경에 위치한 토니나의 벽화에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마야 전체에 퍼져 있는 공통된 신화적 전승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



<그림-6> 왼쪽 왼쪽의 모식도는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⑦에 위치한 토니나의 스투코 부조(stucco frieze)를 나타낸 것이다. 그 오른쪽은 부조를 확대한 그림인데 지옥의 신(시발바의 주신 운 카메 혹은 부꿍 카메)이 우너뿌의 잘려진 목을 들고 있는 모습이며, 아랫줄 왼쪽은 거꾸로 매달린 누군가의 머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 그 오른쪽은 허리에 요크를 차고 공놀이를 하는 두 사람(우너뿌나 스발란께)을 상징하는 그림이다.(이는 모두 직접 촬영한 사진임)

24) 본래의 뽀뽀부는 마야 상형문자로 써어 졌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16세기 중엽의 스페인어로 써여진 것이다.



<그림-7> 또니나의 부조와 마야의 260일 달력과 사방의 조화.

이제 뽕뽕부에 의거하여 또니나의 스투코 부조를 해석해 보자.²⁵⁾ 중앙을 구분하고 솟은 것을 생명나무(世界樹 또는 宇宙木)를 상징하는 것이라 본다면 사방으로 뻗은 네 개의 사선은 뽕뽕부의 기록에서처럼 우주를 설계한 끈(뱀)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세계관은 왼쪽의 <그림-7>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위는 또니나의 플랫폼의 가운데에 있는 우주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중앙의 커다란 생명나무 축을 두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선들은 우주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끈들이다. 밑의 그림에서 보여지듯 사방(四方)을 상징하는 이 네 개의 끈은 마야의 제의력 260일을 나누어 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우주에 있어 시공(時空)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시발바(Xibalba)의 죽음의 신이 들고 있는 머리는 우나뽕의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놀이를 하기 위하여 시발바에 간 우나뽕과 스발란께는 칼의 집, 추위의 집, 불의 집, 표범의 집 등을 거치는 시험을 모두 무사히 통과하였고, 마지막으로 칼날 모양의 코를 가진 사나운 박쥐들로 가득한 박쥐의 집으로 보내졌는데, 우나뽕가 새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살인 박쥐 까모솟츠(Camozotz)가 그의 머리를 낚아채었고, 이

25) 상세한 뽕뽕부의 내용은 Tedlock, Dennis (1996) 참조.

26) 뽕뽕부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 길목에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사선이 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조물의 옆에 있는 <그림-7>에 보이는 부조를 보면 우주의 사방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에 우나뿌의 머리가 경기장에 떨어지자 이를 집어든 시발바의 죽음의 신이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의 생명 나무 반대편에 시발바에 간 우나뿌와 스발란께가 겪은 고난의 하나인 표범의 집을 상징하는 표범의 얼굴이 있고, 그 왼쪽에는 박쥐의 모습을 한 부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조물이 뽀뽀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시발바의 죽음의 신 왼쪽 아래에 있는 생쥐의 그림이다. 이 그림은 우나뿌와 스발란께가 공놀이를 하기 위해 시발바를 방문할 때, 그들에게 시발바에서 죽은 그들의 부친 ‘운 우나뿌(Hun Hunapu)’와 그의 형제 ‘부꿈 우나뿌(Vucub Hunapu)’가 사용한 공놀이 용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생쥐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주의 끈이 교차되는 지점에 매달린 사람의 얼굴이다. 나중에 우나뿌와 스발란께가 태양과 달이 되는 전승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우나뿌와 스발란께의 머리들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태양과 달 보다는 공놀이에 이기고도 시발바의 두 신, 운 까메와 부꿈 까메에게 죽음을 당한 두 형제의 아버지 운 우나뿌와 형제 부꿈 우나뿌의 머리 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V. 마치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수마신따강 지역의 서북쪽, 마야의 변경 지대에 위치한 빨랭계의 종속 도시였던 또니나는 8세기 이후 고전기 마야의 쇠락 시기에 모도시였던 빨랭계와의 긴 주도권 다툼 과정을 거쳐 승리하였으나, 이들의 급속한 팽창에 거부감을 느낀 인근 제 부족과의 투쟁²⁷⁾이 지속되었고 아직 문화적으로도 미성숙한 터라 과거 빨랭계가 누리던 주도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은 확실하게 누리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또니나는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위세의 과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산의 경사면을 이용한 건축물의 증축,

27) 표-1 참조, 빼에드라스 네그라스나 뽀모나와의 전쟁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비석과 여러 기념물의 지속적인 제작, 마야 전래의 신화 체계를 담은 스투코 부조 형태의 벽화의 제작 등 또니나의 주도권 확보 노력은 여러 방면에 걸쳐 지속되었다. 또한 그들의 건축 및 벽화 등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또니나는 자신의 지배 체제 강화를 위해서 마야 지역에 널리 공유되고 있던 창조 신화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니나의 지정학적 특성, 마야의 서북 변경이자 멕시코 만에 연접한 위치상의 특징 때문에 이 도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따바스코 지방에서 침입한 멕시코계 주민에게 정복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석비에 기록된 909년(마야 장기력 10.4.0.0.0.)을 마지막으로 또니나의 역사는 종식을 고했고, 멕시코 지역의 영향을 받은 ‘파인 페이스트 도기’ 제작자 집단이 또니나를 장악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타 마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브라이언 페이건, 2000, 『인류의 선사 문화: 선사시대의 인류와 문화와 문명(WORLD PREHISTORY : A BRIEF INTRODUCTION)』, 이희준 역, 서울: 도서출판 사회평론.
-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 강주현 譯, 『문명의 붕괴: COLLAPSE』, 김영사. 2009.
- 칼 토베 저, 이응균 외 譯, 『아즈텍과 마야 신화』. 범우사. 1998.
- Maria Longhena 저, 강대은 譯, 『마야 문명(Ancient Mexico) - 마야, 아즈텍의 역사와 문화』, 생각의 나무, 2004.
- Nueva Enciclopedia Larouse* 1984.
- Historia de Cultura Latinoamericana*, copy本 1979.
- Annegrete Hohmann-Vogrin, "Unity in Space and Time - The Maya Architecture" in Nikolai Grube (ed.). *Maya: De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Konemann. 2006.
- Caroline Humphrey, Piers Vitebsky, *Scared Architecture*, Duncan Baird

- Publishers Ltd. 1997.
- John S. Henderson. *The World of the Ancient Maya* (2nd Ed.), Cornell Univ. Press, 1997.
- Coe, Michael D. *The Maya*. Ancient peoples and places series (6th edition, fully revised and expanded ed.). London and New York: Thames & Hudson. 1999.
- David Freidel, Linda Schele, Joy Parker *Maya Cosmos-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Perennial. 2001.
- Drew, David. *The Lost Chronicles of the Maya Kings*.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9.
- Tedlock, Dennis. *Popol Vuh*, New York; Touchstonebook. 1996.
- Espinosa Diaz, Margarita. "Creación y Destrucción en Toniná". *Arqueología Mexicana*, Vol. IX, número 50, July-August 2001, p.16 (Mexico: Editorial Raíces). 2001.
- Karl Taube. "The Classic Maya Gods" in Nikolai Grube (ed.). *Maya: De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Konemann. 2006.
- Kelly, Joyce. *An Archaeological Guide to Central and Southern Mexico*.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1.
- Markus Eberl "Death and Conceptions of the Soul" in Nikolai Grube (ed.). *Maya: De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Konemann. 2006.
- Martin, Simon; and Nikolai Grube. *Chronicle of the Maya Kings and Queens: Deciphering the Dynasties of the Ancient Maya*. London and New York: Thames & Hudson. 2000.
- Marilyn Masson. "The Dynamics of maturing statehood in postclassic Maya Civilization" in Nikolai Grube (ed.). *Maya: De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Konemann. 2006.
- Miller, Mary Ellen. *Maya Art and Architecture*. London and New York: Thames & Hudson. 1999.
- Robert j. Sharer, Lod P. Traxler. *The Ancient maya* (6th e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2006.
- Schele, Linda and Freidel, David.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New York: Harper Perinial, 1990.

- Sharer, Robert J.; with Loa P. Traxler. *The Ancient Maya* (6th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Sodi M. Demetrio. *Las Grandes Culturas de Mesoamérica*. D.F. Panorama. 1996.
- Thompson, E.S., *Maya History and Religion*, Oklahoma City, 1976.
- Stuart, David. "An Unusual Calendar Cycle at Tonina" (PDF online publication). Mesoweb articles. Mesoweb: An Exploration of Mesoamerican Cultures. 2002. <http://www.mesoweb.com/stuart/notes/Cycle.pdf>. Retrieved 2009/05/15.
- Stuart, David; and George Stuart. *Palenque: Eternal City of the Maya*. London: Thames & Hudson. 2008.
- Taube, Karl 'The Classic Maya Gods' in Nikolai Grube" (ed.).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México*: Konemann. 2006.
- Yadeun, Juan. "El Museo de Toniná: Territorio del tiempo". *Arqueología Mexicana*, Vol. IX, número 50, July-August 2001, pp.44-49 (México: Editorial Raíces). 2001.

❖ ABSTRACT

A Study on Tonina,
a Maya Community of Classical Period in Mexico

Kim, Woo-Joong

In the earlier period, 'Po' was one of many Mayan communities that had been subordinate to Palenque. In later classic period, Tonina wrest the leadership away from Palenque, and took the initiative in the northwestern region of Usumacinta River. And then its original name 'Po' got changed into 'Tonina' that means 'House of stone' in Tzeltal, one of the Mayan language family members.

Palenque and Tonina vied with each other for the leading position, and finally Tonina took the victory to Palenque after lengthy struggles and battles. But thereafter they also fought continuously against several neighboring tribes that had a feeling of uneasiness about the rapid growth of Tonina. Added to this, Tonina was culturally an immature group. Therefore, Tonina stepped up various efforts to expend their presence and to retain domination there, such as building construction using slope of mountains, erecting huge 'estelas' and stone monuments, stucco type murals and manufactures reflecting mythological elements etc. Tonina continued to take the initiative and to compete for the leading power from various angle and over many sides.

But, in shortly after, Tonina was conquered by the 'Mexican' tribes, who invaded easily Tonina from Tabasco area because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djacent to the northwest of the Maya region and not far from the Gulf of Mexico). Herewith in 909 A.D. (from an estela documenting this last year of Tonina's history), Tonina's hegemony ended. At that time, the tribes which were producing 'fine paste ceramics' occupied Tonina and for the 'Mexican' invaders this place became a starting point to expand and spread their power over other Mayan tribes.

Key Words

고전기 마야, 메소아메리카, 토니나, 팰랑께, 파인 페이스트, A.D.909(10.4.0.0.0.)
Classic Mayan Period, Mesoamérica, Tonina, Palenque, Fine paste,
A.D.909(10.4.0.0.0.)

논문접수일: 2009. 11. 16.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